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 및 자산빈곤 실태와 정책방안

*Policy Strategies for Reducing Income and Asset Poverty Among Korean
Old-Age Households*

이주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높은 수준이며 OECD의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도 매우 높다는 점은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빈곤을 측정할 때 소득 혹은 지출을 중심으로 계산됨에 따라 고령으로 노동시장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연금소득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노인들의 경우 소득 혹은 지출중심의 빈곤율은 높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노인들이 지니고 있는 특징을 고려하여 자산을 함께 고려한 노인빈곤율이 측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본 고에서는 위와 같은 점을 인식하고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통해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한 노인빈곤율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비노인가구에 비해 노인가구의 소득 및 자산빈곤의 수준이 높았으며, 자산빈곤에 비해서는 소득빈곤이 더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인가구 유형별 빈곤분석에서는 노인독거가구가 노인부부 및 기타노인가구에 비해 소득 및 자산빈곤 모두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현세대 노인 중 혼자 사는 노인들의 사회적 위험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종단적 분석 결과 많은 노인가구가 소득 및 자산측면에서 한 번 빈곤하면 계속해서 빈곤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노인가구를 위한 탈빈곤 정책이 함께 시행될 필요가 있겠다.

1. 들어가며

현세대 노인(65세 이상)들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문제로 4고를 들고 있다. 여기서 4고(苦)는 병고(病苦), 빈고(貧苦), 고독고(孤獨苦), 무위고(無爲苦)로 현세대 노인들이 생활속에서 직면한 어려움이라 볼 수 있다¹⁾. 이중 현 정부 들어 관심을 가지고 회자된 것이 노인의 소득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초연금법으로 지난 5월 동법이 통과(2014. 5. 2)됨으로써 노인의 70%가

기존 기초노령연금 급여에 비해 2배 높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대표적인 노인빈곤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높은 수준이며 OECD의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도 매우 높다는 점은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소득 혹은 지출을 중심으로 빈곤율이 계산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의 짧은 역사 때문에 연금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채 고령으로 노동

1) 4고의 내용을 보면 고령으로 인한 건강상실, 소득상실로 인한 빈곤, 배우자나 주변 사람들과의 단절로 인한 외로움, 은퇴 이후 사회적 역할 축소에 따른 역할 상실감을 의미함.

시장에서 벗어난 가입자들이 많기 때문에 소득 혹은 지출중심의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 노인들이 지니고 있는 특징을 고려시 소득 및 지출 중심의 빈곤 측정이 아닌 자산을 함께 고려한 노인빈곤율이 측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일부 선행연구들(윤희숙 외(2013))²⁾에서도 노인빈곤율 측정은 소득 및 자산을 함께 측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기된 바가 있다.

본 고에서는 위와 같이 노인빈곤율(65세 이상) 측정에서 자산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통해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한 노인빈곤율을 살펴보고자 한다³⁾. 동 자료는 전국 대표성과 조사항목에서 소득 및 자산을 모두 조사하고 있으며, 2개년에 걸친 패널자료라는 점에서 노인들의 소득 및 자산변화와 이에 따른 빈곤율 변화를 함께 분석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한 자료이다.

2. 분석방법 및 자료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1년 시작된 패널형태의 조사로 소득 및 자산조사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국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한국은행의 금융관련 통계조사가 통계청과 합해지면서 2009년부터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2009년과 2010년은 초기 조사로 금융관련(자산 및 부채) 통계가 제공되었다. 이후 패널로 확대되면서 복지부문(소득 및 지출) 관련 통계가 추가되어 새로운 형태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동 자료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조사자료 중 유일하게 연간패널로 구축되어 있어, 종단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가계동향조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빈곤율은 절대적 기준과 상대적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절대적 기준은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선정시 사용하는 연도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⁴⁾ 상대적 빈곤은 중위소득 50% 미만을 기준으로 하여 빈곤율을 추정하였다. 자산 기준 절대빈곤선은 연구자에 따라 서로 상이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남상호(2009)의 경우에는 순자산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6개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Brandolini, Magri, and Smeeding(2010)는 자산빈곤을 '전기의 순자산이 예비적저축률과 소득빈곤선 곱보다 작을 경우'로 규정하면서 절대자산빈곤을 연소득빈곤선의 3개월분으로 정하기도 했다(임병인, 2011,

2) 윤희숙 · 권형준(2013). 가구유형과 공적연금 수급여부를 고려한 고령층 빈곤과 자산분포 현황, KDI정책포럼 254호, 한국개발연구원.
 3) 노인의 소득과 자산관련 통계로 국민노후보장패널(국민연금연구원), 고령화연구패널(한국고용정보원) 등이 있지만 동 조사자료들은 노인만(국민노후보장패널)을 대상으로 하거나 전체 인구집단이 아닌 일정연령(45세 이상: 고령화연구패널) 이상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노인과 비노인간의 비교가 어렵다는 점에서 여기서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였음.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가구 선정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소득인정액)을 적용하고 있음. 이 글에서도 소득 및 자산분석시 소득인정액 방식을 활용할 수 있지만 동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환산율(주거용, 비주거용), 부채고려 정도 등 많은 요인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어 여기서는 소득인정액 방식이 아닌 소득과 자산을 별도로 구분하여 노인가구의 빈곤율을 산출하고자 함.

재인용). 여기서는 남상호의 연구와 동일하게 최저생계비 6개월 금액 미만을 절대적 빈곤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상대 빈곤 측정시 기준소득은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자산은 총자산과 순자산(총자산에서 부채를 상계)을 함께 분석하고 있다⁵⁾. 또한 가구원수별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OECD 기준 가구균등화지수로서 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것을 기초로 하여 빈곤율을 산출하였다.

3. 노인빈곤 분석결과

1) 노인가구 자산분포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자산 분포를 살펴보면, 먼저 2011년 기준으로 노인가구의 평균 총자산은 약 3억원이었으며, 2012년 약 3억 수준으로 큰 변화는 없다. 비노인가구는 2011년과 2012년 모두 약 3억3천만원으로 노인가구에 비해 약 3천만원 정도 높았다. 중위를 기준으로 노인가구의 총자산은 약 137백만원, 2012년 145백만원으로 다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비노인가구의 총자산은 2011년 약 184백만원, 2012년 193백만원으로 천만원 가량 증가했

며, 노인가구에 비해 총자산규모가 높았다. 즉 비노인가구에 비해 노인가구의 자산수준은 크게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하고 싶은 점은 노인가구의 금융자산 수준이다. 2011년 평균 약 51백만원, 2012년 55백만원인 반면에 비노인가구는 평균적으로 약 1억원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노인가구는 즉시 발생할 사회적 위험(질병, 사고 등)에 바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노인가구는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에 대해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⁶⁾.

노인가구 유형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노인독거가구의 자산 규모가 낮고 노인부부 및 기타노인가구의 자산수준이 높았다. 특히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부동산 자산도 취약했지만 금융자산 역시 매우 낮다는 점에서 위기 발생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노인가구의 빈곤수준(소득 및 자산)

분석방법에서 설정한 것과 같이 여기서는 노인가구의 소득 및 자산빈곤수준을 절대적 및 상대적 방식을 통해 2개년도(2011, 2012)에 걸쳐

5) 자산빈곤을 산출함에 있어 빈곤선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자산빈곤에 대한 정의에 있어 연구자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임(남성호, 2009; 임병인, 2012 등). 소득 및 지출 빈곤의 경우 절대적 및 상대적 빈곤선의 설정을 통해 소득과 지출을 통해 빈곤지수를 계산하고 있지만, 자산에 있어서는 총자산, 부채, 순자산의 성격과 절대적 및 상대적 기준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음(남상호(2009), 저소득층의 자산실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병인(2012), 자산빈곤, 김문길 외 편,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서도 65세 노인의 58.5%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규모는 137백만원이었으며, 노인부부는 217백만원 수준으로 조사되었음. 반면에 금융자산은 평균적으로 16백만원 정도(노인부부는 약 25백만원)를 보유하고 있음. 역시 노인들은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 자산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정경희 외(201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1. 노인가구¹⁾ 자산분포

(단위: 만원/년)

구분						노인가구	비노인가구
			노인독거	노인부부	기타노인 ²⁾		
2011	평균	총자산	9,906	33,772	39,144	30,080	33,203
		순자산	9,064	30,507	33,377	26,226	27,129
		금융자산	1,905	4,437	7,248	5,150	9,312
		부동산	7,919	28,618	30,220	23,909	21,955
		부채	841	3,265	5,767	3,855	6,074
	중위	총자산	3,505	15,950	22,073	13,725	18,395
		순자산	3,240	15,158	18,292	12,120	14,883
		금융자산	365	1,000	3,007	1,536	4,760
		부동산	1,250	13,500	15,000	10,000	10,000
		부채	0	0	750	0	1,300
2012	평균	총자산	9,992	35,960	38,603	30,677	33,256
		순자산	9,133	32,439	32,420	26,472	26,838
		금융자산	1,836	5,302	7,419	5,501	9,891
		부동산	8,050	29,802	29,382	24,027	21,328
		부채	860	3,521	6,183	4,205	6,419
	중위	총자산	3,600	18,057	21,782	14,500	19,328
		순자산	3,401	16,340	18,115	12,503	15,304
		금융자산	370	1,320	3,490	1,999	5,358
		부동산	1,000	14,000	15,000	10,000	10,400
		부채	0	0	1,000	0	1,535

주: 1) 2011년 - 노인가구(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는 총 가구 중 28.14%이며, 노인가구 중 노인독거가구(26.6%), 노인부부가구(24.2%), 기타노인가구(49.2%)임.

2012년 - 노인가구(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는 총 가구 중 27.13%이며, 노인가구 중 노인독거가구(25.6%), 노인부부가구(23.2%), 기타노인가구(51.3%)임.

2) 기타노인가구는 노인가구 중 노인독거가구를 제외한 노인가구를 말한다. 따라서 3명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가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분석하고자 한다. 소득은 경상소득을, 자산은 총 자산과 순자산을 함께 고려한다. 먼저 절대빈곤 기준 노인가구의 총자산 빈곤율은 8.4%로 경상 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율 35.0%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비노인가구의 4.0% 수준에 비해서는 약 2배 이상 높은 빈곤율을 보

여주고 있다. 2012년 8.5%로 노인가구의 자산 빈곤율이 큰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순자산을 기준으로 하면 빈곤율이 9.9%(2011년)로 총자산기준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지만, 역시 2012년에는 10.2%로 다소 상향된 수준이다.

상대빈곤의 경우 총자산기준은 2011년 노인

가구가 34.6%로 경상소득 빈곤율 47.3%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높은 자산빈곤율을 보여주고 있다. 동일 기준 비노인가구 29.0%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2012년에도 34.1%로 두해 동안에 큰 변화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순자산을 기준으로 하면 2011년 33.5%, 2012년 33.3%로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과 비교시 국제기준으로서 중위소득 50%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경우 소득빈곤과 더불어 자산빈곤 역시 높은 수준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빈곤수준 산정시 자산을 고려해도 빈곤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노인가구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다른

노인가구 유형에 비해 노인독거가구의 자산빈곤율이 약 2~4배까지 높았다. 2011년 총자산 기준 노인독거가구는 절대적 기준 18.9%, 상대적 기준 59.5%로 노인부부의 5.2%, 26.4%에 비해 2~3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2012년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자산빈곤율이 개선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 여러 자료들에서 보고된 것과 같이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노인독거가구의 빈곤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가구 중 노인독거가구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노인가구 유형별로 소득빈곤율과 자산빈곤율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상대빈곤을 기준으로 총자산과

표 2. 노인가구의 가구유형별 소득 및 자산 빈곤율

(단위: %)

구분			노인가구			비노인가구	
			노인독거	노인부부	기타노인		
2011	절대빈곤 ¹⁾	총자산	18.9	5.2	4.3	8.4	4.0
		순자산	20.2	5.9	6.4	9.9	7.6
		경상소득	60.5	43.6	17.0	35.0	6.5
	상대빈곤 ²⁾	총자산	59.5	26.4	25.2	34.6	29.0
		순자산	56.5	24.8	25.4	33.5	30.4
		경상소득	82.2	57.2	23.7	47.3	10.9
2012	절대빈곤 ¹⁾	총자산	20.3	5.5	4.1	8.5	3.8
		순자산	21.4	6.1	6.4	10.2	7.5
		경상소득	63.1	42.7	15.9	34.2	6.6
	상대빈곤 ²⁾	총자산	58.7	25.0	26.0	34.1	28.6
		순자산	56.3	22.6	26.5	33.3	30.0
		경상소득	83.7	57.4	22.5	46.2	11.5

주: 1) 절대빈곤: 총(순)자산이 연도별 최저생계비×6개월 미만인 비율, 경상소득이 연도별 최저생계비 미만인 비율

2) 상대빈곤: 각 자산 또는 경상소득의 중위 50% 미만인 비율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경상소득의 빈곤관계를 살펴보면, 2011년 자산과 소득 동시빈곤의 비율은 노인독거가구 54.7%, 노인부부가구 23.5%, 기타노인가구 11.8%로 2012년 각각의 유형별로 54.4%, 22.2%, 12.0%와 비슷한 수준이다.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2명 중 1명은 자산과 소득 동시빈곤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들의 경우 총자산 기준으로 자산과 소득 동시빈곤, 자산만 혹은 소득만 빈곤한 비율이 2011년 87.0%, 2012년 88.0%로 빈곤이 지속되고 있으며, 노인부부의 경우도 두 해에 걸쳐 약 60%가 빈곤지속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다. 전체노인가구로 보아도 약 55%

는 두 해 동안 빈곤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비노인가구는 약 32%가 빈곤이 지속되는 것으로 대략 1.5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산만 또는 소득만 빈곤인 경우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자산만 빈곤한 비율보다는 소득만 빈곤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노인가구의 경우 자산만 빈곤이 8.6%에서 8.9%로 0.3%p 증가하였고, 소득만 빈곤은 21.3%에서 21.0%로 0.3%p 감소한 점, 자산과 소득 동시빈곤비율이 비노인가구에 비해 노인가구가 3배 이상 높다는 점에서 소득빈곤 뿐만 아니라 자산빈곤문제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 3. 노인가구유형별 소득 및 자산 빈곤을 관계(상대빈곤 기준)

(단위: %)

구분						노인가구	비노인가구
			노인독거	노인부부	기타노인		
2011	총자산과 경상소득	자산과 소득 동시빈곤	54.7	23.5	11.8	26.0	7.5
		자산만 빈곤	4.8	2.9	13.4	8.6	21.5
		소득만 빈곤	27.5	33.7	11.9	21.3	3.4
		둘다 비빈곤	13.0	39.9	63.9	44.1	67.6
	순자산과 경상소득	자산과 소득 동시빈곤	52.1	21.9	11.6	24.8	7.6
		자산만 빈곤	4.4	2.9	13.8	8.6	22.8
		소득만 빈곤	30.1	35.3	12.1	22.5	3.3
		둘다 비빈곤	13.5	40.0	62.5	44.0	66.3
2012	총자산과 경상소득	자산과 소득 동시빈곤	54.4	22.2	12.0	25.2	8.2
		자산만 빈곤	4.3	2.8	14.0	8.9	20.4
		소득만 빈곤	29.3	35.1	10.5	21.0	3.4
		둘다 비빈곤	12.1	39.9	63.5	44.9	68.1
	순자산과 경상소득	자산과 소득 동시빈곤	52.0	20.2	11.9	24.1	8.1
		자산만 빈곤	4.4	2.5	14.6	9.2	21.8
		소득만 빈곤	31.7	37.2	10.6	22.2	3.4
		둘다 비빈곤	12.0	40.2	62.9	44.6	66.7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3) 노인가구 소득 및 자산 빈곤의 동태적 변화

여기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 패널자료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비록 짧지만 2개년도(2011년, 2012년)에 걸쳐 노인가구의 소득과 자산빈곤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노인가구의 소득 및 자산빈곤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고 있는지 혹은 유지 또는 증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간접적으로 노인들의 생활수준 변화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총자산을 기준으로 2개년도간 소득 및 자산의 빈곤을 변화를 보면, 노인가구 중 2년동안 자산과 소득이 동시에 빈곤한 경우는 21.6%로 자산과 소득 둘 다 비빈곤한 가구(38.5%)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이는 노인 가구 5가구 중 1가구는 계속해서 소득과 자산이 빈곤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활이 매

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점이다. 2개년 동안 소득만 빈곤한 경우는 14.9%, 자산만 빈곤한 경우는 5.5%로 계속해서 소득이 빈곤한 노인가구가 자산이 빈곤한 가구에 비해서는 약 3배정도 높았다. 다음 순자산을 기준으로 한 경우도 비슷하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노인들의 소득빈곤 완화를 위한 방안들이 필요하며, 동정책과 더불어 자산이 빈곤한 노인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노인가구는 노인가구에 비해서 2개년도에 걸쳐 자산 및 소득이 빈곤한 가구들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노인가구와 달리 특징적으로 자산만이 빈곤한 경우가 15.3%로 높다는 점에서 노인의 빈곤 형태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순자산을 기준으로 2개년도 간의 소득 및 자

표 4. 노인 소득 및 자산 빈곤을 변화(총자산 및 상대빈곤 기준)

(단위: %)

2011 \ 2012		자산과 소득 동시빈곤	자산만 빈곤	소득만 빈곤	둘다 비빈곤	계
노인가구	자산과 소득 동시빈곤	21.6	1.7	1.7	0.4	25.3
	자산만 빈곤	1.9	5.5	0.1	1.4	8.9
	소득만 빈곤	2.0	0.3	14.9	3.7	20.8
	둘다 비빈곤	0.7	1.0	4.9	38.5	45.0
	계	26.1	8.4	21.6	43.9	100.0
비노인가구	자산과 소득 동시빈곤	4.9	2.2	0.1	0.3	7.5
	자산만 빈곤	2.5	15.3	0.1	3.4	21.3
	소득만 빈곤	0.2	0.1	1.4	1.4	3.0
	둘다 비빈곤	0.4	2.5	1.7	63.6	68.1
	계	8.0	20.0	3.4	68.6	100.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산 빈곤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총자산 기준과 마찬가지로 노인가구에서는 2년동안 자산과 소득 동시빈곤이 20.2%로 둘다 비빈곤한 37.8%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노인가구 중 2011년 자산만 빈곤하였던 9.0% 중 18%에 해당하는 즉 1.7%에 해당하는 비율이 2012년에는 자산과 소득 동시빈곤 상태가 되었으며, 2개년 연속 자산만 빈곤한 노인가구 비율이 5.5%, 소득만 빈곤한 노인가구 비율이 15.6%로 나타났다. 즉, 노인가구 중 41.3%가 두 해에 걸쳐 자산과 소득 동시빈곤, 자산 또는 소득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비노인가구의 경우 22.0%가 동시빈곤과 소득 또는 자산 빈곤이 지속되는 비율의 약 2배인 것이다. 따라서 노인가구의 경우 소득 관련 정책지원 뿐만 아니라 자산유지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가구 유형별로 2개년에 걸쳐 소득 및 자산빈곤율 변화(순자산 및 상대빈곤 기준)를 보면, 소득 및 자산을 별도로 분석한 것과 동일하게 노인독거가구의 소득 및 자산에서의 빈곤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노인독거가구 중 2개년 동안 자산과 소득이 동시에 빈곤한 경우는 47.0%로 거의 노인독거가구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상대빈곤선 미만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둘 다 비빈곤한 경우는 8.3%로 빈곤가구가 약 5.7배 높았다. 소득만 빈곤한 경우도 22.8%로 자산만 빈곤한 1.9%와 비교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즉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세 가구 중 두 가구는 소득만이 빈곤하거나 혹은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상태에 놓여져 있으며, 동 사항이 두해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노인들의 탈빈곤 역시 쉽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표 5. 노인 소득 및 자산 빈곤율 변화(순자산 및 상대빈곤 기준)

(단위: %)

2011 \ 2012		자산과 소득 동시빈곤	자산만 빈곤	소득만 빈곤	둘다 비빈곤	계
		노인가구	20.2	1.6	2.1	0.4
	자산만 빈곤	1.7	5.5	0.2	1.6	9.0
	소득만 빈곤	2.3	0.3	15.6	3.7	21.9
	둘다 비빈곤	0.8	1.5	4.9	37.8	44.9
	계	24.9	8.8	22.8	43.5	100.0
비노인가구	자산과 소득 동시빈곤	4.9	2.2	0.2	0.3	7.6
	자산만 빈곤	2.5	15.8	0.2	4.2	22.6
	소득만 빈곤	0.2	0.1	1.3	1.4	3.0
	둘다 비빈곤	0.4	3.3	1.7	61.4	66.8
	계	8.0	21.4	3.4	67.2	100.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반면에 노인부부가구의 경우에는 두해에 걸쳐 빈곤한 경우는 소득만 빈곤한 경우가 27.8%로 높았으며, 소득과 자산이 동시에 빈곤한 경우는 16.8%로 노인독거가구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노인부부 가구의 경우에도 약 60%에 이르는 가구가 두해에 걸쳐 계속해서 빈곤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점에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른 노인가구 유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빈곤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기타노인가구의 약 37%가 상대 빈곤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역시 다른 노인가구 유형과 같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4. 마무리

이 글에서는 노인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자산빈곤의 변화를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횡단 및 종단적 분석을 하고 있다. 분석 결과 비노인가구에 비해 노인가구의 소득 및 자산빈곤의 수준이 높았으며, 자산빈곤에 비해서는 소득빈곤이 더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인가구 유형별 빈곤분석에서는 노인독거가구가 노인부부 및 기타노인가구에 비해 소득 및 자산빈곤 모두에서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현세대 노인 중 혼자 사는 노인들의 사회적 위험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종

표 6. 노인가구 유형별 소득 및 자산 빈곤율 변화(순자산 및 상대빈곤 기준)

(단위: %)

2011 \ 2012		자산과 소득 동시빈곤	자산만 빈곤	소득만 빈곤	둘다 비빈곤	계
노인독거	자산과 소득 동시빈곤	47.0	1.1	4.1	0.2	52.4
	자산만 빈곤	1.7	1.9	0.3	0.4	4.3
	소득만 빈곤	4.8	0.3	22.8	1.9	29.8
	둘다 비빈곤	0.9	0.2	4.2	8.3	13.6
	계	54.3	3.5	31.4	10.8	100.0
노인부부	자산과 소득 동시빈곤	16.8	0.7	2.5	0.6	20.6
	자산만 빈곤	1.1	0.9	0.3	0.7	2.9
	소득만 빈곤	2.7	0.2	27.8	5.2	35.9
	둘다 비빈곤	0.7	0.2	7.2	32.4	40.6
	계	21.3	2.1	37.8	38.9	100.0
기타노인	자산과 소득 동시빈곤	8.8	1.9	0.8	0.3	11.8
	자산만 빈곤	1.9	9.8	0.2	2.8	14.6
	소득만 빈곤	0.9	0.3	5.8	3.7	10.6
	둘다 비빈곤	0.6	2.8	3.9	55.7	63.0
	계	12.2	14.7	10.6	62.5	100.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단적 분석 결과 많은 노인가구는 소득 및 자산 측면에서 한 번 빈곤하면 계속해서 빈곤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노인가구를 위한 탈빈곤 정책이 함께 시행될 필요가 있었다.

분석결과를 통해 노인가구를 위한 정책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빈곤 측정시 자산을 고려해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낮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부에서 제기되는 자산을 포함할 시 노인들의 빈곤율이 실제 보다 낮아지고 소득기준을 하는 것에 비해 정확하게 노인가구의 빈곤상태를 보여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 그 이유로 상대적 자산빈곤율이 낮지 않다는 점과 두 번째로 노인들의 자산구성에 있어 부동산에 대한 보유자산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위기발생시 사용할 수 있는 현금화 즉 유동성 자산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노인가구 자산빈곤율의 완화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세대 노인들의 소득 및 자산 빈곤율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 가구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우선적으로 가장 취약세대인 노인독거가구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가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으로 소득 및 자산에서 모두 빈곤한 노인독거가구 등을 위해서는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극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이들 노인들이 소득, 주거 및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노인가구의 경우 단순히 소득 등 생활지원을 할 경우 일정부분 빈곤수준은 완화될 수 있지만, 실질적 삶의 질은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노인의 4고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외로움을 덜어 주고 자신의 존재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함께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는 노인들이 건전한 문화생활과 안정적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⁷⁾. 노인들이 문화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노인세대들이 경험할 수 있는 문화향유 프로그램과 노인들의 과거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방안들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일을 하고자 하는 노인들을 위해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을 통해 이들 중소기업들이 노인들을 재고용함으로써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노인들의 소득강화는 물론 건강보험 보험료 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향후 고령화의 진전으로 베이비부머세대(1955~1963년생)가 대거 노인세대로 진입할 경우 상당부분은 노후준비가 미흡할 것이라 점에서 빈곤화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베이비부머세대들이 현재의 일자리를 지속하거나 퇴직시 노동시장 참여경력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이들 세대의 빈곤화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빈곤율 상승 또한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

7) OECD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들은 엄격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로 인해 비정규직과 좋지 않은 일자리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사회의 사회통합을 방해하고 있는 주요 요인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음(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2013).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언(Strengthening Social Cohesion in Korea)).